

최초 인터뷰 | 고려대 입학처장
“잘못된 것 없다”

주간조선
Weekly Chosun

weekly.chosun.com | 2009 02 23 | 2043호

고/용/빙/하/기

구직 · 재취업 가이드



성형한국, 新트렌드
이것만은 알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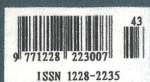
한·일 해저터널 논의
이제 제대로 불붙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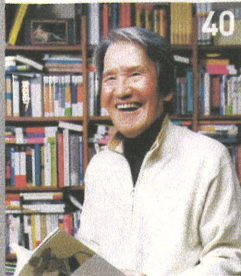


싸고 맛있는 정육식당들
강재섭, 대선 향해 뚝다
 세계문학전집 200권 낸 민음사
용산세무서장의 독도 연구



효녀가수 별
노래에 담은 나의 이야기





40



48

세계문학전집 200권째 펴낸 민음사 _040

대한민국이 세계문학전집 200권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쾌거입니다. 1934년생인 민음사 박맹호 회장이 이 일을 해낸 주인공입니다. 박 회장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제대로 된 세계문학전집을 내겠다는 평생의 사업 목표를 세우고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오랜만에 글 읽는 재미를 느껴보시죠.

정육식당이 뜬다 _048

'제2의 IMF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요즘 밖에서 한우고기를 먹는 것은 웬만한 중산층으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1인분 150g에 4만원대가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이 외식을 하면 20만원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우고기를 반값에 파는 정육식당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만을 만한 곳을 골라 소개해 드립니다.



52

연재 | 술의 달인 ② _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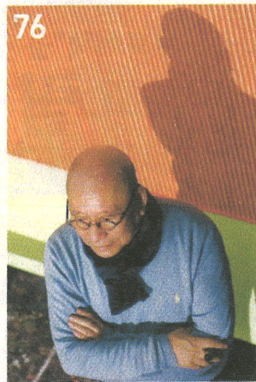
이번 주 '술의 달인'은 국내 와인 수입 1호로 평가받는 까브드벤 유안근 사장입니다. 한국 와인 시장과 함께 성장한 와인 수입의 산증인으로 평가받는 유 사장은 "와인은 숨쉬는 생물"이라며 "열정만큼 감동을 돌려준다"고 와인 예찬론을 폈습니다. 그의 와인 인생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대상 인문학 강좌의 힘 _055

지난해 12월 서울 경희대학교 강당에서 노숙인 등 저소득 빈곤층 200여명이 학사모를 쓰고 한데 모였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 1기 졸업생들입니다. 노숙인에게 무슨 인문학이냐고요? 불만만 가득했던 이들의 가슴속에서 일어났던 작은 변화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세요.



55



76

진화하는 헌혈 _074

따뜻한 조영, 포근한 소파, 다양한 음료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젊은이들... 최근 헌혈 장소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부 장식이 고급스럽고 화사해졌고 각종 음료와 책, TV 등 헌혈을 기다릴 동안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팀 알퍼의 스포츠 영어 칼럼 _058

국제 | 이란 신정체제의 위기 _062

지도로 읽는 세상 ⑩ | 파나마운하 _066

김동건 한국철도문화재단 첫 이사장 _068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수학적 반박, 정태만 울산세무서장 _070

아틀리에 & 아티스트 ② | 박서보 _076



74

문화섹션 *Wink*

zoom in _080

연예계 대표 소녀 가수인 별이 5집 앨범 'Like a Star'로 컴백했습니다. 그녀를 만나 새로운 음악과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culture & events _082

뮤지컬 '돈 주앙'은 스페인의 전설적 오페라탈나쁜 남자인 돈 주앙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스페인 무용수들의 플라멩코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food material | 참돔 _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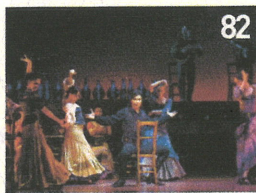
참돔의 가장 맛있는 부위는 머리입니다. 그중에서도 눈 주위가 가장 맛있습니다. 여기에는 젤라틴 물질인 유코디당류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관절의 골수과 같은 성분입니다.

wine _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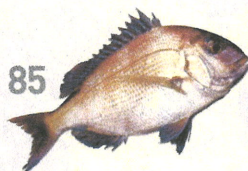
지난 2월 10일 방한한 비넥스포(VINEXPO) 조직위원장이자 사장인 로베르 베냐(Robert Beynat)씨를 만나 세계와 한국 와인 시장을 집중조명해 보았습니다.

book _088

21세기는 매력 추구의 시대입니다. 신간 '매력이 경쟁력이다'에서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도 21세기의 새로운 경쟁코드로 내세우는 매력을 탐구합니다.



82



85



80

| 사 람 들 | 한국철도문화재단 김동건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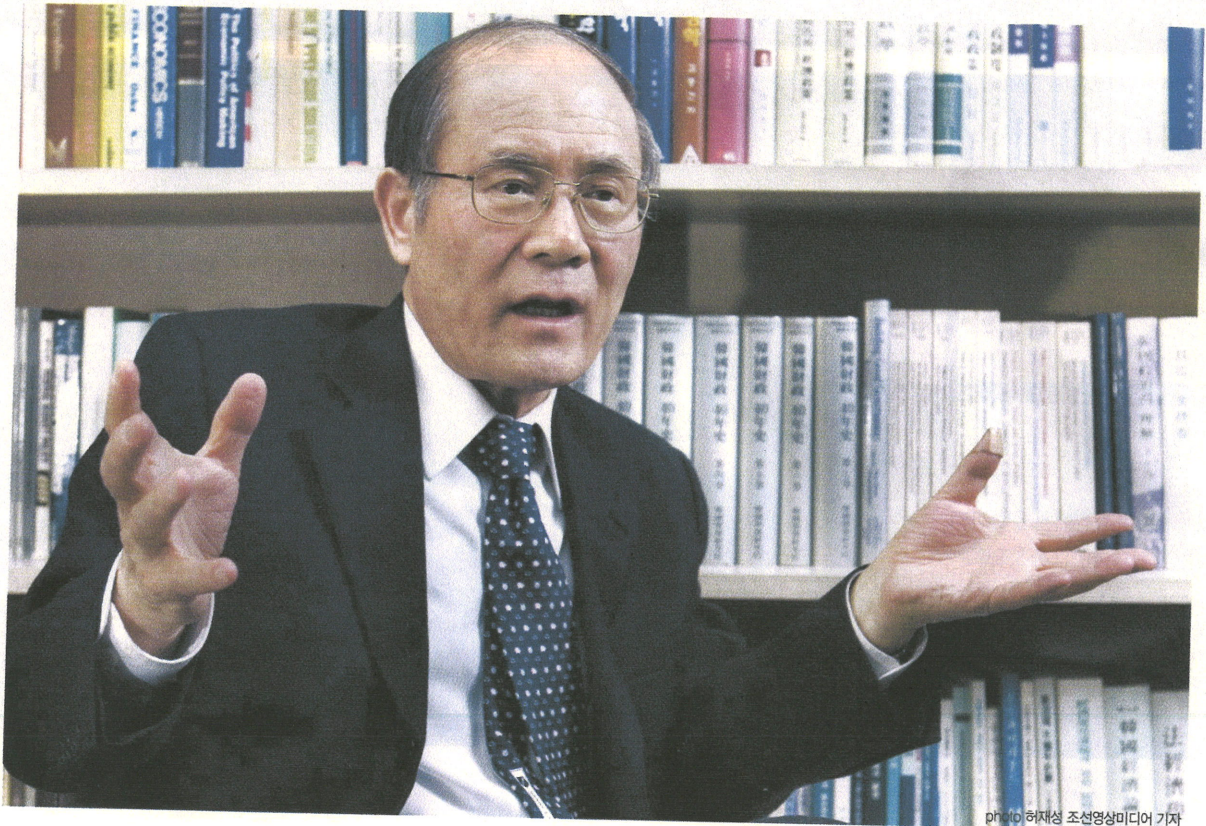


photo: 허재성 조선영상미디어 기자

“철도는 교통수단을 넘어 삶을 실은 문화 110년 애환 한눈에 보여줄 박물관 추진”

| 이동훈 기자 flatron2@chosun.com |

지난 2월 6일 서울대에서 김동건(65)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지난 1월 1일 출범한 한국철도문화재단은 철도에 관한 자료와 각종 문건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선진 철도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민간단체다. 현재 철도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는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8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초대 이사장인 김동건 이사장을 필두로 철도대학 최연해 학장, 우송대 이용상교

수(철도경영학과) 등 10여명의 철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김동건 초대 이사장은 그동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특히 재정학에 밝아 세제발전심의회위원을 역임했고 1995년에는 한국재정학회 회장도 지냈다. 재정학에 관해 쓴 책만 9권이나 된다.

그는 순수한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철도에 관한 열정에선 ‘최고’라고 인정받는 인물이다. 철도의 전환기마다 결정적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노태우 정부 출범 직전인 1987년에 경부고속철도(KTX) 타당성 검토 작업에 참여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철도구조개혁을 지휘하면서 우리나라의 철도 관련 기관을 운영 전담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건설 및 유지 전담자인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하는 결정도 이끌었다. 2006년부터 한동안은 한국철도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 철도는 그동안 기술, 서비스, 능력에

용산 국제업무단지 안에 건립... 폐역 200곳은 철도문화관으로 도로 중심 교통체계가 환경 재앙 불러... 21세기는 철도 시대

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 시속 350km로 달릴 수 있는 KTX-2도 운행에 들어갈 날이 머지않았죠. 예전엔 열차를 타면 승객들이 신발을 벗은 채 냄새 나는 오징어를 씹는 일도 비일비재 했는데 요즘 KTX에서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KTX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의 의식까지 전환시킨 것이지요. 하지만 일본과 같은 철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철도의 문화 발전이 아직 기술 발전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도문화재단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특히 고속도로와 자동차 문화의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철도의 위상과 중요성을 국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게 하는 데에 관심이 크다.

“철도는 교통수단이자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이별의 부산 정거장’ ‘대전발 0시50분’ ‘남행열차’ 같은 노래처럼 예전에 철도는 우리 삶과 함께 했죠. 하지만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밀려 점차 외면받으면서 철도나 철도에 얽힌 애환을 다룬 노래들도 함께 사라져가는 인상입니다. 이렇게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철도문화를 모아서 보존·관리하고 바람직한 새 문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재단의 역할입니다.”

현재 철도문화재단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철도 관련 자료를 한데 모으는 철도 박물관의 건립이다. 경기도 의왕에 철도박물관이 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

“우리나라 철도 역사는 110년에 달합니다. 하지만 철도 관련 자료나 유물은 제대로 보존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왕 철도박물관은 서울에서 먼 편이어서 접근성

도 떨어지지요. 철도공사에서 매년 지급하는 2억~3억원으로 철우회(철도공사 퇴직자 모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요.”

그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2018년 용산 국제업무단지(현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에 들어설 ‘용산 철도박물관’이다.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과 맺은 협정에 ‘철도박물관을 들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박물관 건립에 동의 의사를 보냈죠.”

벤치마킹 대상은 일본의 동일본 철도문화재단이다. 1992년 동일본철도(JR East)가 출연한 비영리재단으로 출범해 현재 도쿄역 갤러리와 철도박물관 등을 운영하면서 각종 철도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0월 세계 최대급의 철도박물관으로 개관한 사이타마(埼玉) 철도박물관은 2만 8000㎡ 규모로 여러 기록과 자료는 물론, 실제 사용됐던 철도차량 등도 전시하고 있다. 공사비만 200억엔(약 3000억원)이 들었고 개관 1년도 안돼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박물관에서 나오는 부대수입은 철도문화재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도심에 철도박물관이 들어서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그는 “철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박물관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철도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고 중국·일본 등의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국 900개 철도역 가운데 기능을 다해 방치되고 있는 200개의 폐역을 철도문화관으로 개조하는 계획도 세우

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문화재단의 역할이 문화사업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철도문화에 대한 국민 홍보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본받을 만한 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철도 정책 결정 과정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우리 철도는 접근이나 편리성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특히 기존 철도망은 서로의 연계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실패작이 인천공항철도입니다. 접근성과 연계성이 부족해 텅 빈 채로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저도 경기도 분당에 집이 있지만 생각만큼 자주 철도를 이용하진 쉽지 않아요.”

그는 우리나라 교통 체계를 자동차 중심으로서 철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계속 자동차와 도로에만 의존하다가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안으로 제시되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도 결국 자동차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의 새 교통수단은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운 철도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하철과 경전철, 장거리의 고속철도(KTX)로 구축구석 연결돼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이나 한·일 해저터널을 통한 철도연결 같은 프로젝트에도 우리 재단에서 의견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는 오는 2월 20일 서울대 교수로서 정년 퇴임식을 갖는다. 나이가 드니 철도가 더욱 좋아진다고 말하는 그는 이번 퇴임식 때 제자들이 집필한 ‘철도정책론’이란 책을 발표하는 시간도 갖기로 했다. ■